

# 전남도, 대학-지역 동반성장 혁신모델 강화 나선다

지역혁신사업 종합성과공유회 개최  
에너지신산업기술 향상·인재 양성  
5년간 3천억원 투입 '그랜드 전남'  
진학·취업·정주 선순환 생태계 구축

전남도가 지역혁신사업(RIS)을 통해 에너지신산업과 미래운송기기 분야 기술력 향상·인재 양성 기틀을 마련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 대학-지역 동반성장 혁신모델을 강화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은 이날 현대호텔바이라한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공유회 및 지역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성수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이개호 국회의원,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등 사업에 참여한 전남지역 대학 총장과 교수, 학생, 지역혁신기관 관계자 500여 명이 함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3일 영암 호텔현대바이라한에서 열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성과공유회 및 지역발전 토론회'에서 RIS 성공다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자체와 대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주제 강연과 RIS 5개년 종합성과 보고, 지역발전 토론회, 전남 RISE 추진계획 설명회, RIS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RIS는 학령인구 감소 등 지방대학 위기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지자체-대학-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이 플랫폼을 구축,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혁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도는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의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운송기기를 2대 핵심 분야로

정하고, 기술력 향상과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산업수요에 맞는 연구개발, 맞춤형 인재양성에 매진했다. 특히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 기술개발을 통해 조선업 분야 사업 수주 및 비숙련 근로자의 작업 효율성 개선 등 일자리 창출과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 실질적인 성과도 보였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RIS 등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종료되고, 지자체 주도의 RISE 사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구축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허브센터 구축 △지역산업 혁신 챌린지 △대학-지역 동반성장 프로젝트 등 5년간 총 3031억 원을 투입해 'GRAND 전남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법은 지역 핵심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RISE 지·산·학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과 기술 개발로 미래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해, 인재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진학·취업·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전남도, 자체 개발 김 신품종 종자 분양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개발  
햇바디·해풍·해모돌 등 4종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자체 개발한 햇바디1호, 해풍1호, 해풍2호, 해모돌1호 등 신품종 4종의 2026년산 김 생산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종자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분양을 원하는 업체는 분양 신청서, 수산종자생산업(김류) 허가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해양수산과학원 9개 지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국내 최초 양식품종 3종류 모두를 신품종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밭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사무늬김 2종(해풍1호·해풍2호), 자반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모무늬돌김 2종(해모돌1호·신품1호)과 가장 고가이고 맛있는 잇바디돌김(일명 곱창김)인 햇바디1호다.

특히 전국 물김 생산량의 78%를 생산

하는 전남도는 2011년부터 어가에 보급하기 시작한 해풍1호, 해모돌1호를 비롯해 지난해 김 위판 최고가를 경신한 햇바디1호를 지속 개발함으로써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수출 10억 달러 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분양단가는 김 유리사상체 1g당 2만 5000원이며, 전남지역 김 종자생산업체에만 분양이 가능하다.

유리사상체 1g이면 패각사상체 5000개를 키울 수 있으며, 김 양식어업인은 33척 채묘가 가능해 최종 2200만원의 소득을 올리게 된다. 김종자 1g에서 880배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다.

김종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급변하는 어장환경에 대응해 양식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종 연구 및 개발로 어업인 소득이 증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별 맞춤형 신품종 개발을 위해 김 양식어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 광주시, 올해 석면 피해자·유족에 23억 지원

피해인정 60명 월 45만~187만원  
요양생활수당 지급...수급자 증가

광주시는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 등으로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올해 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국가·지자체·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해 지난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45만원에서 최고 187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며, 유족에게는 353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또 석면피해 인정신청 도중 사망하더라도 사후에 인정되면 최저 882만원에서 최고 5300만원까지 특별유족 조의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올해 석면피해 인정자 60여 명에게 매월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등 건강 회복과 치료 활동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중복지급은 제한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흉부CT 촬영이 가능한 광주지역 병원 56곳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지하철역사·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했다.

광주시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지난 2021년 11명에 불과했던 석면피해 급여수급자가 2025년 6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석면 피해자에게 요양생활수당으로 28억 원을 지급했으며, 요양급여인 치료실비, 장례비, 유족조위금 등으로 13억 원을 지급하는 등 총 41억여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했다.

신규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은 석면질병검사기관인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등에서 검사받은 결과서와 함께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주소지 구청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환경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고, 인정여부가 통지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석면은 단열·보온 등 기능이 뛰어나 과거 건축자재로 사용됐으나, 직경이 0.02~0.03μm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정도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오면 축적돼 폐암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이러한 석면은 8~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종괴,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의 생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시, 해빙기 건설공사장·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4월15일까지 474곳 실태 점검

광주시는 봄철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4월15일까지 지역 건설공사장·재난취약시설·급경사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광주시, 자치구, 전문기관과 함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반구조가 약화되는 해빙기에는 지반침하, 구조물 부동침하 및 균열, 공사장 흙막이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률이 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선제적 점검을 통

해 안전사고를 예방조치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토목 및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70개소와 급경사지·옹벽·절토사면 및 산사태 취약지역 등 404개소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장 주변 침하 여부,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 주변 축대 등 변형 여부, 구조물 균열·침하 발생 여부, 안전시설 설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현장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조치가 어려운 부분은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 마늘·양파 가격·수급 안정관리 총력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연계  
소득증대·생산비 절감 경쟁력 강화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과 연계해 마늘·양파 가격 및 수급 안정관리에 온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기계화

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농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농가 조직화 교육, 상품성 제고를 위한 공동선별, 유통시설·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2개년간 총 10억원(국비 50%·지방비 40%·자부담 10%)이 투입된다.

정부는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자조금단체와 주산지 시

군, 농협, 생산자 등이 포함된 민관 거버넌스 협업을 통해 사전에 자율적 가격안정과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마늘·양파 경영체의 △재배기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생산기술 안정성 추구 △육묘, 복토, 정식, 줄기 전단, 수확 등의 농기계 보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 △선별기, 건조기 지원을 통한 품질 표준화 등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 전남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전남도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월 317만 원·4인 가구 384만 원 등)인 청소년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양육비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포털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 문의하면 된다.

양국진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